

필립 라킨의 상업주의 비판*

윤 희 수

차 례

- I. 서론
- II. 라킨의 상업주의 비판
- III. 결론

I. 서론

필립 라킨(Philip Larkin, 1922-1985)이 2차 대전 이후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1950-60년대 영국 사회를 바라보며, 소비중심주의와 상업주의가 대중의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인이었음을 규명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정치와 무관한 삶의 본질적 주제를 지향한 시인, 아니면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했던 시인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라킨의 시 세계의 또 다른 면모를 조명함으로써 그의 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킨의 시는 흔히 시간, 죽음, 우연과 선택 등 삶의 보편적 주제를 취급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라킨과 오랫동안 교분을 쌓아온 그의 충실한 이해자 앤 쏘니 쓰웨이트(Anthony Thwaite)는 라킨의 주제들이 “사랑, 변화, 환멸, 과거의 존속성과 죽음의 궁극성이라는 신비와 설명 불가능성”(54)이라고 보았으며, 라킨과 함께 “시운동파”(The Movement) 시인으로 분류되는 존 웨인(John Wain)은 라킨의 주요한 시적 주제가 “선택의 행위”와 “개인의 삶 속의 시간의 효과”라고 단정한다(98, 100). 라킨의 시가 당대의 정치나 역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취급한다는 이러한 비평적 견해는 1957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II] 교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D-2014-0699).

년 5월 『런던 매거진』(*London Magazine*)이 라킨을 포함하여 스티븐 스펀더(Stephen Spender), 윌리엄 골딩(William Golding), 존 오스본(John Osborne) 등 아홉 명의 작가들에게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라킨의 응답으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1930년대에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당대의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에 긴밀하게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였습니다. 1957년 지금, (1) 어떤 작가가, 예를 들어 로젠버그 사건과 헝가리 혁명과 같은 인간 자유의 직접적인 문제들에 무관심해 보이거나, (2) 예를 들어 (a) 핵무기의 개발과 차별과세를 통한 계급 간의 격차 줄이기로 초래되는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의 변화들과, (b) 생물학, 천문학, 심리학 상의 최근 발견들이 야기하는 인간 존재의 개념에 대한 도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3) 그의 소설, 희곡, 시가 오직 작품의 내적 증거만으로 판단을 받아 지난 50년 동안 어떠한 시기에도 쓸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이것이 그 작가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¹⁾

이에 대해 라킨은 “좋은 작품일수록 시대에 대한 관심사가 덜하다”고 말하며 문학과 시대와의 긴밀한 상관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다.

오늘이든, 어느 다른 날이든 한 작가에 대한 저의 유일한 비평은 (제 생각으로) 그가 잘 못 쓴다는 것이며, 이는 ‘비참어’ 보다 확실히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작품의 시기에 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좋은 작품일수록 시대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최고의 찬사는 그 작품이 한 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FR 3)

1) Philip Larkin, *Further Requirements: Interview, Broadcasts, Statements and Book Review, 1952-85*.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2004. p. 4-5. 이하 FR로 약칭하며, 라킨의 *Required Writing: Miscellaneous Pieces 1955-1982*는 RW로 약칭함.

또한 라킨은 그 다음 해 「내가 시를 쓰는 방법과 이유」라는 제목의 BBC 방송 기고문에서 시는 시대와 국적의 울타리를 초월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강화한다.

내가 독자로부터 추구하는 것은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라는 식의 반응이다. 독자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FR 78)

이와 같은 라킨 자신의 입장으로 뒷받침되어 그가 보편성을 추구한 시인이라는 평가가 견고하게 유지되었지만, 1985년 라킨이 식도암으로 사망한 뒤 새로운 자료들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극적인 전환을 맞는다.

1988년 쓰웨이트가 편찬한 『라킨 시 전집』(*The Collected Poems*)의 출간으로 기존에 발표된 작품들의 두 배에 가까운 시들이 공개되었고, 연이어 1992년에 쓰웨이트의 『필립 라킨의 서한 선집』(*Selected Letters of Philip Larkin, 1940-1985*)과 1993년 앤드류 모션(Andrew Motion)의 라킨 전기 『필립 라킨: 한 작가의 인생』(*Philip Larkin: A Writer's Life*)이 출간되면서 이제까지 독자들이 알지 못하던 라킨의 새로운 면모가 소개되었다.²⁾ 특히 이 가운데 서한집과 전기는 그의 여성혐오, 인종차별적 견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는 “검둥이를 쫓아내라”(SL 493), “경기장 테두리에서 소란을 떠는 저 흑인 놈들, 남아프리카 경찰이었다면 내 속이 시원하도록 몰아내버렸을 텐데”(SL 719)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흑인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경멸과 증오를 표출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을 도와 주려 하지 않는다. 아이를 원하고 멋진 장면들을 좋아하며, 지니고 있는 감정을 의복처럼 요란하게 과시할 기회를 노린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당신이 자신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건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다”(SL 158)라 말하며 여성을 폄하하고, 적지 않은 여성 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기피해온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2) 이하 시 전집은 CP, 서한 선집은 SL로 표기함.

서한집과 전기가 출판 되자마자 라킨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다. 런던 킹즈 매리 대학의 교수 리자 자딘(Lisa Jardine)은 서한집이 출간된 1992년 『가디언』지에서 “필립 라킨은 최상의 명시 선집에 들어갈 본질적으로 영국적인 종류의 세목을 골라낼 뛰어난 감별력을 지닌, 자비롭고 온화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 예사롭고 습관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고, 태연자약한 여성혐오자이다....사실상 이제는 이 대학의 영문과에서 라킨을 많이 가르치고 싶지 않다”(Booth 188에서 재인용)고 혹평하였다. 테리 이글튼(Terry Eagleton) 역시 2007년 7월 7일자 『가디언』지에 실린 평론 「남은 것은 핀터 뿐이다」에서 “2세기 만에 거의 처음으로, 서구적 삶의 방식의 기본 토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갖춘 영국의 저명한 시인, 극작가나 소설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시대의 비공식적인 계관 시인이던 필립 라킨은 파업자들을 목매달아야 한다고 쓰던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그를 폄하하였다.

이처럼 여성혐오와, 인종차별적 입장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1957년 『런던 매거진』의 질의에 좋은 시의 조건을 역사와 정치와 거리두기라고 답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라킨은 1969년에 당시 영국에서 거세게 일던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짧은 시 「러시아 탱크들이 서방으로 굴러올 때」(“When the Russian tanks roll westward”)를 썼고, 같은 해 이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영향력을 상실한 영국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해외에 영국군을 주둔시키지 못하고 철수시키는 것을 개탄하는 내용의 시 「어떤 정부에 대한 경의」(“Homage to the Government”)를 발표하여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한다. 실제로 라킨은 1979년 『옵저버』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는 우파적 입장을 취해왔음을 고백한다.

나는 언제나 우파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치 사상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우파는 어떤 미덕들과, 좌파는 어떤 악들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궁급하시다면, 검소, 노력, 존경, 보존의 욕심 등이 미덕이고, 반면에 게으름, 탐욕과 반역이 악덕입니다. (RW 52)

라킨의 고백대로 비록 체계적인 정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가 당대의 영국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치나 역사를 초월한 영속적인 삶의 주제를 추구하는 시인이라는 기존의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그의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³⁾ 그렇더라도 그의 작품들을 보수적, 반동적 정치관과 연결시켜 쉽사리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의 시를 보수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 단순화시킬 경우, “로렌스(D. H. Lawrence)로부터 흡수한 반자본주의적 비판 정신”(Whalen 144)으로 당대의 현실을 바라보던 라킨의 또 다른 시선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이 논문은 주로 라킨의 세 번째 시집 『성령강림절의 결혼식』(*The Whitsun Weddings*)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풍요한 사회를 지향하는 소비중심주의와 이를 조장하는 상업주의의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성찰하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단순히 우파적이고 반동적인 정치관에만 집착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모색한 시인이었음을 밝혀내려 한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라킨 시의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I. 라킨의 상업주의 비판

1955년 라킨의 두 번째 시집 『덜 속은 자』(*The Less Deceived*)가 출간된 이후 세 번째 시집 『성령강림절의 결혼식』이 나오기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영국 사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2차 대전 참전 이후 줄곧 지속되었던 식료품의 배급이 1950년대 중반 들어 중단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으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내구성을 갖춘 소비품들”을

3) 그 한 가지 예로 톰 폴린(Tom Paulin)은 라킨의 시들이 “서정시로 가장하여 공적인 진술을 표출한다”(162)고 보고,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풀밭에서」(“At Grass”)에 등장하는 퇴역한 경주마들이 “지금은 편하게 서 있지만 쇠약하고 익명의, 소홀히 방치된 유명한 장군들, 영웅적인 선조들”(163)로서 이 시가 이차대전 후 제국주의 영국의 지나간 영광과 현재의 쇠락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해석한다.

4) 테리 웨일런은 라킨이 젊은 시절 로렌스를 읽었으며 자본주의의 배금주의와 산업주의에 대한 로렌스의 도덕적 경멸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149).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가 마련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 80 퍼센트의 영국인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광고는 새로운 주력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며, 대규모 주택 건설 산업이 추진되어 자기 주택의 소유가 대중의 실현가능한 열망이 된다. 1957년은 전후 내핍생활을 유지해오던 영국인들에게 소비가 미덕이 되는 새로운 풍요 사회를 여는 첫해로서 해롤드 맥밀란(Harold Macmillan)이 이끄는 보수당 정권은 “영국인들이 이제껏 이처럼 좋은 삶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정치적 구호로 유권자들을 자극했으며, 케네스 갈브레이스(Kenneth Galbraith) 교수의 1958년 저서의 제목 『풍요로운 사회』가 이 시기의 표제어로 등장한다(Regan 100-101).

『성령강림절의 결혼식』의 첫 작품 「여기에」(“Here”)는 이처럼 소비중심사회로 변모하는 영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라킨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 시집의 표제 시 「성령강림절의 결혼식」(“The Whitsun Weddings”)에서 라킨이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던 헐(Hull)로부터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 여행 도중에 목격하는 풍경들을 열거하듯이 이 시 역시 “풍부한 산업의 그늘과/ 밤새 북쪽을 향하는 교통을 피해 동쪽으로 방향을 튼”(Swerving east, from rich industrial shadows/ And traffic all night north)(CP 136) 기차여행을 통해 그가 6년 동안 살아온 도시 헐의 모습들을 담담하게 묘사한다.

여기에 돛과 조각상, 첨탑과 기둥기들이
곡식 낱알 흩어진 거리, 바지선 밀집한 바다 옆에 모여 있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은
납작한 모양의 노면 전차를 몰래 타고 수 마일을 실려와
판유리 회전문을 밀치고 그들의 욕망으로 다가선다--
값싼 정장, 붉은 색 주방용품, 뽀족 구두, 얼음 사탕,
전기 믹서, 토스트기, 세탁기, 건조기--

오로지 장사꾼과 친척들만이 찾아오는 곳에 사는
도시적이지만 단순한, 할인 가격의 군중들,
거리 위쪽 막다른, 생선 비린내 풍기며 늘어선
목가적 분위기의 선박들 안쪽으로는, 노예 박물관, 문신 가게들,
영사관, 통명스런 표정의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아낙네들;

담보 대출을 받아, 반쯤 지어진 가장자리 너머로는
 빠르게 그늘지는 밀밭들이 생나무 울타리처럼 높이 솟아,
 마을들을 고립시키고, 그곳에선 삶이 없어

외로움만 뚜렷해진다.

Here domes and statues, spires and cranes cluster
 Beside grain-scattered streets, barge-crowded water,
 And residents from raw estates, brought down
 The dead straight miles by stealing flat-faced trolleys,
 Push through plate-glass swing doors to their desires—
 Cheap suits, red kitchen-ware, sharp shoes, iced lollies,
 Electric mixers, toasters, washers, driers—

A cut-price crowd, urban yet simple, dwelling
 Where only salesmen and relations come
 Within a terminate and fishy-smelling
 Pastoral of ships up streets, the slave museum,
 Tattoo-shops, consulates, grim head-scarfed wives;
 And out beyond its mortgaged half-built edges
 Fast-shadowed wheat-fields, running high as hedges,
 Isolate villages, where removed lives

Loneliness clarifies. (*CP* 136)

라킨은 열거의 기법을 통해 돔, 조각상, 첨탑과 기둥기, 바지선, 그리고 쇼핑
 물이 혼재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낸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교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 상점으로 몰려든다. “값싼 정
 장”과 “붉은 색 주방용품”은 전후 영국 서민들의 소비중심주의의 상징물이며
 (Cooper 158), 믹서기, 세탁기와 건조기는 불편하고 내핍의 삶을 겪어온 영국
 인들에게 편리한 삶과 물질적 풍요를 보장할 것 같은 상품들이다. 진열된 물건
 들과 이것들을 구입하러 모여드는 군중들의 모습은 현대 생활의 “혼잡한 상업

주의”(Swarbrick 104)의 단면을 보여준다.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반쯤 지어진 가장자리들”은 주택 보급을 위한 대규모의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예고한다. 또한 라킨은 “할인 가격의 군중들”의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저렴한 상품으로 물질적 욕구를 채우려는 대중의 값싼 욕망을 은밀하게 꼬집는다.

「여기에」와 같은 해에 발표된 「크고 시원한 가게」(“The Large Cool Store”)에서도 라킨은 현대인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상업주의와, 그 속에서 변질되는 사랑의 의미를 점검한다.

단순한 크기로 소박하게 진열된
값싼 옷들(편물 의류, 여름용 캐주얼, 긴 양말,
갈색과 회색, 밤색과 남색)을 파는
크고 시원한 가게는
공장, 작업장, 현장 시간에 맞추어

새벽에 테라스가 낮은 집들을 나서는 이들의
평일의 세계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셔츠와 바지들의 더미를 지나면
밤 모드 제품의 판매대가 펼쳐진다:
기계로 수놓고, 블라우스만큼 얇은,

레몬 색, 사파이어 색, 이끼의 녹색, 장미색의
브라이 나일론 사 잠옷과 짧은 옷가지들이
무리지어 몸부림친다. 그것들이 저 세계를 공유하고,
저런 종류가 그것을 입은 무엇인가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보인다,

사랑이, 혹은 여성들과 그녀들의 행동이,
얼마나 동떨어지고 비현세적인지,
또는 우리의 젊은 시절 비현실적 소망들 속에서
그렇게 보이는지: 합성적이고, 새로우며,

황홀함 속에 자연미가 없는지.

The large cool store selling cheap clothes
 Set out in simple sizes plainly
 (Knitwear, Summer Casuals, Hose,
 In browns and greys, maroons and navy)
 Conjures the weekday world of those

Who leave at dawn low terraced houses
 Timed for factory, yard and site.
 But past the heaps of shirts and trousers
 Spread the stands of Modes For Night:
 Machine-embroidered, thin as blouses,

Lemon, sapphire, moss-green, rose
 Bri-Nylon Baby-Dolls and Shorties
 Flounce in clusters. To suppose
 They share that world, to think their sort is
 Matched by something in it, shows

How separate and unearthly love is,
 Or women are, or what they do,
 Or in our young unreal wishes
 Seem to be: synthetic, new
 And natureless in ecstasies. (CP 135)

“크고 시원한” 옷가게에 크기 별로 진열된 “갈색과 회색, 밤색과 남색” 등 어두운 색조의 값싼 의복들은 아침 일찍 일터로 나서는 근로자들의 고단한 삶을 연상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마법을 걸어 유혹한다는 “conjure”의 또 다른 뜻에 유념할 때, 이 구절은 옷가게로 표상되는 상업주의가 근로자들이 낮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금전적 보상으로 옷을 구입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것을 유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 생산으로 복제된 옷들은 오히려 소비자들

의 개별성을 빼앗고, 할인 가격으로 구입한 값싼 옷들만큼이나 그들을 값싼 존재로 만들어버린다(Cooper 158-9).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크고 시원한” 옷가게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남루하고 궁색한 현실의 삶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것이다.

라킨은 여성용 잠옷과 란제리가 남성용 “셔츠와 바지들의 더미를 지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배치 구조를 묘사할 때 “Spread”와 “flounce”처럼 성적인 암시를 지닌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상업주의가 인간의 성적 욕망을 부추겨 소비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복으로 사회적 계층이 표출되고 선정적인 속옷으로 여성의 몸을 왜곡하여 성적인 호기심과 욕망을 조장하는 “합성적이고 새로우며” 부자연스러운 상업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젊은 시절 비현실적 소망들 속에서” 품고 있던 사랑, 아마도 서로 다른 개성을 소유한 남녀가 인격체로 만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현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령강림절의 결혼식』에 수록된 「본질적인 아름다움」(“Essential Beauty”)에서 라킨은 자본주의 소비중심사회의 표상인 거대한 광고판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누추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확인한다.

사방을 마주보면서 거대한 빵 덩어리들로
거리의 막다른 곳들을 가로막고, 커스터드로 무덤들을 가리고,
자동차 윤활유와 잘라낸 연어 조각들에 대한 찬사로
빈민가를 덮는 방만한 크기의 틀 속에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그린
작은 숲들이 영원히 빛난다. 흙통 위로 높이
은제 칼이 황금색 버터 속으로 가라앉고,
우유 한 잔이 초원에 서있다, 그리고
화창한 한 여름 날씨에, 균형 잘 잡힌 가족들은
그들의 미소, 자동차,
젊음까지, 각자 손을 뻗어 집으려하는
저 작은 입체 조각에 신세지고 있다. 이것들, 그리고 취침시간
찾잔들에 맞춰 정렬된 깊숙한 안락의자들,
(가스 또는 전기) 열선 난로, 따뜻한 방석 위 슬리퍼 곁에

비스듬히 누운 고양이들,
 그 어느 것도 그것들이 실외에서 지배하는

 비 내린 거리와 광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In frames as large as rooms that face all ways
 And block the ends of streets with giant loaves,
 Screen graves with custard, cover slums with praise
 Of motor-oil and cuts of salmon, shine
 Perpetually these sharply-pictured groves
 Of how life should be. High above the gutter
 A silver knife sinks into golden butter,
 A glass of milk stands in a meadow, and
 Well-balanced families, in fine
 Midsummer weather, owe their smiles, their cars,
 Even their youth, to that small cube each hand
 Stretches towards. These, and the deep armchairs
 Aligned to cups at bedtime, radiant bars
 (Gas or electric), quarter-profile cats
 By slippers on warm mats,
 Reflect none of the rained-on streets and squares

They dominate outdoors. (*CP* 144)

압도적인 크기의 광고판은 “거리의 막다른 곳들,” “무덤들,” “빈민가들”로 대표된 일상적 삶의 누추한 모습을 가린 채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제 5행의 “작은 숲”은 과거의 “목가적이고 시적인 영국”의 모습(Regan 120)을 연상시키며 칙칙하고 을씨년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향수를 교묘하게 자극한다. 이처럼 광고판은 먹음직스런 식품품, 자동차, 난방기구, 아늑한 가구 등을 갖춘 “균형 잘 잡힌” 인간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핍의 삶을 거쳐 풍요한 사회를 열망하는 영국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욕망을 “지배하는” 광고판 속

의 이미지들은 “비 내린 거리와 광장”으로 대표된 일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차가운 이상의 세계를 보여줄 뿐이다.

오히려, 그것들은 조용히 솟아올라
그처럼 새롭게 만들거나 깨끗하게 씻긴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너머를 응시하며,
저 모든 것들이 놓여있는 집을 찾는
우리의 살아있는 불완전한 눈에
순수한 껍질, 순수한 거품, 순수한 차가움을 선포한다.

Rather, they rise
Serenely to proclaim pure crust, pure foam,
Pure coldness to our live imperfect eyes
That stare beyond this world, where nothing's made
As new or washed quite clean, seeking the home
All such inhabit. (CP 144)

라킨이 “광고관은 아름답지만 묘하게도 무한히 관념적인 본질들처럼 슬프게 보인다”고 말했듯이(Motion 321), 완벽한 모형들로 구성된 플라톤의 이데아를 연상시키는 광고의 이미지들은 남루한 현실의 “불완전한” 인간들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순수한 거품”에 불과하다. 아늑함, 만족과 풍요, 그리고 영원한 젊음을 보여주는 광고는 실제로는 이미지 속의 품목들을 놓아둘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한 현실의 “불완전한” 인간들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환상인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라킨은 광고의 이미지와 현실과의 격차를 강조하기 위해 “서까래 드러난 어두운 선술집”(dark rafted pubs)을 전전하는 사람들과, “반 페니를 더 내고”(paid/ A halfpenny more) 좋아하는 상표의 차를 사지만 결국 “노년을 맛볼”(To taste old age)뿐인 “연금 생활자”(the pensioner)와 “죽어가는 흡연자”(dying smokers)(CP 144)의 모습을 열거한다. 이처럼 이 시는 현실과 유리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물질적 풍요가 이상적 삶의 조건인 듯이 소비자를 미혹하는 광고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햇빛 찬란한 프레스타틴」(“Sunny Prestatyn”)에서 라킨은 웨일즈에 위치

한 해변휴양지 프레스타틴을 홍보하는 광고 속 여성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상업주의 사회에서 성적 이미지의 상품화 현상을 성찰한다.

오세요 햇빛 찬란한 프레스타틴으로
포스터의 아가씨가 웃었다,
팽팽히 당겨진 흰색 새틴 옷을 입은 채
모래 위에 무릎 꿇고서.
그녀 뒤로, 한 덩어리의 해안,
야자수들 있는 호텔이
그녀의 허벅지들로부터 팽창해서
가슴을 들어 올린 양팔을 펼치는 듯 보였다.

Come to Sunny Prestatyn
Laughed the girl on the poster,
Kneeling up on the sand
In tautened white satin.
Behind her, a hunk of coast, a
Hotel with palms
Seemed to expand from her thighs and
Spread breast-lifting arms. (CP 149)

포스터 속의 여성은 소비자를 쾌청한 날씨와 목가적인 휴양지에 대한 환상 속으로 인도한다. 라킨은 그녀의 유혹적인 옷매무새와 복종하듯 꿇어앉은 자세 뿐만 아니라, 덩치 큰 근육질의 남성을 지칭하는 비속어 “hunk,” “허벅지,” “가슴을 들어 올린 양팔,” “팽창해서,” “펼치는” 등의 성적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이 광고의 중심 전략이 여성의 몸으로 남성 소비자의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포스터는 노골적인 마케팅 전략 속에 여성을 사물화 하고 있는 것이다(Cooper 155). 이어지는 두 개의 연들 속에서 라킨은 광고 속의 여성을 낙서로 흥취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들을 진단해본다.

3월 어느 날 그녀는 호되게 당했다.
2주일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은
빼드렁니에 사팔뜨기;
거대한 젓가슴과 갈라진 가랑이를
잘 그려 넣었고, 그녀의
두 다리 사이에는
덩이줄기 모양의 남근과 고환에 잘도 올라앉은
그녀 위에 휘갈겨 쓴

난쟁이 토마스라는 서명, 그런가 하면
누군가 칼이나 무엇인가를 사용하여
미소 지은 그녀 입술 위에 그려진 콧수염을
찢어서 꿰뚫어 버렸다.
그녀는 이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다.
이내, 횡으로 크게 찢어
손 하나와 약간의 푸른색만 남았다.
이제 거기에는 암과 싸우자는 포스터.

She was slapped up one day in March.
A couple of weeks, and her face
Was snaggle-toothed and boss-eyed;
Huge tits and a fissured crotch
Were scored well in, and the space
Between her legs held scrawls
That set her fairly astride
A tuberous cock and balls

Autographed Titch Thomas, while
Someone had used a knife
Or something to stab right through
The moustached lips of her smile.
She was too good for this life.
Very soon, a great transverse tear

Left only a hand and some blue.
Now Fight Cancer is there. (CP 149)

“거대한 젓가슴”과 “갈라진 가랑이”를 더하고, 꿰어얕은 그녀의 무릎 아래에 남성의 성기를 그려놓고 “난쟁이 토마스”라는 서명을 “휘갈겨 쓴” 엽기적인 행위에 의해 포스터 속의 여성은 기괴한 모습으로 왜곡된다. 이처럼 낙서로 훼손된 포스터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라킨은 상업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결과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광고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이었다면, 비록 포스터 속 여성의 원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칠고 조잡한 반응을 유발하였지만 그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녀는 이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이 광고는 여성의 몸을 비현실적으로 미화하고 이상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비현실적 환상과 꿈을 갖도록 유도한다. 셋째,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기대를 품고 햇빛 눈부신 해변의 휴양지로 떠날 것을 유혹하는 이 광고가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나 남성적 매력을 갖지 못한 소비자들이 반감을 품고 낙서를 통해 분풀이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즉 광고가 계층간의 격차를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포스터가 찢겨지고 “이제 거기에는 암과 싸우자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마지막 행을 통하여 라킨은 광고의 일회적 속성을 지적하고, 소비를 통해 “일시적 욕망충족”(Cooper 156)에 집착하는 당대 영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또한 그는 여성의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명적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는 광고의 또 다른 전략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킨은 상업주의와 소비중심주의가 대학에 침투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불만과 경계심을 피력한다. 1944년 버틀러 교육법(Butler Act)의 시행으로 초, 중등 교육의 기회가 사회 전 계층에 확대되었고(Marsh 190), 이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대학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례로 라킨이 1955년부터 1985년까지 사서로 근무한 헐 대학은 1954년 런던 대학의 한 지방 단과대학에서 독립적인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고 1945년 174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1980년에는 5,000명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다(Marsh 194-5). 라킨은 한편으로 이러한 양적 팽창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였다. 그는 영국 소설가 바버라 핼(Barbara Pym)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대학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종류의 학생들에 맞춰 변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은 더욱 쉬워지고, 이곳저곳이 작업장의 소란과 실제 파업이 벌어지는 공장 처럼 되어버렸습니다”(Motion 377)라며 대학의 현실을 꼬집는다. 독립적인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한 헐 대학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도서관 시설과 장서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던 라킨은 마침내 1968년에 그가 공동인 브린모 존즈(Brynmor Jones) 도서관이 완공됨으로써 커다란 성취감을 맛보았지만,⁵⁾ 그 후로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골몰한다(Marsh 164-165).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 근무하며 대학의 운영이 차츰 기업화되고 상업주의가 대학 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을 목격한 라킨은 1974년에 출판한 『높은 창문들』(*High Windows*)에 수록된 「후대」(“Posterity”)에서 극적 독백의 기법을 통해 가상의 전기 작가이며 대학 교수인 한 인물을 내세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종신 교수직을 얻기 위해 정작 하고 싶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 교수 사회의 단면을 풍자한다.

내 전기 작가 제이크 발로코우스키가
이 페이지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았다.
케네디 관의 냉방기 달린 연구실에 앉아
청마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약간의 짜증을 숨길 기분이 아니다:
‘최소한 일 년 동안 이 늙은이한테 얹매어 있네요;

텔 아비브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지만,
마이라네 가족들이’--그는 손으로 돈을 표시한다--
‘애들이 있으니까 종신교수직을 얻어야한다고 성화를 했거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한다. ‘그 분야는 케케묵어 악취를 풍겨요.’

5) 흥미로운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하자면 필자가 금년 4월초 헐 대학의 브린모 존즈 도서관을 방문해서 라킨의 자료들을 검색했을 때 그에 관한 자료들이 헐의 역사 회관(History Center)으로 이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 라킨이 헐의 역사의 일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가 공동인 도서관이 그의 자료조차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묘한 감회를 느끼기도 하였다.

그냥 이 빌어먹은 인간은 썩도록 놔두고,
두 학기 휴가를 내서

저항 연극을 연구하려고요.’ 그들은 둘 다 일어나,
코카콜라 자판기로 향한다. ‘그 사람 어떠냐고요?
맙소사,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런 거 알잖아요,
1학년 심리학책에 나오는 형편없는 교과서의 소재,
흥미롭거나 무언가 멋진 구석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구석의, 타고나길 엉망진창인 인간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Jake Balokowsky, my biographer,
Has this page microfilmed. Sitting inside
His air-conditioned cell at Kennedy
In jeans and sneakers, he's no call to hide
Some slight impatience with his destiny:
'I'm stuck with this old fart at least a year;

I wanted to teach school in Tel Aviv,
But Myra's folks' - he makes the money sign--
'Insisted I got tenure. When there's kids--'
He shrugs. 'It's stinking dead, the research line;
Just let me put this bastard on the skids,
I'll get a couple of semesters leave

To work on Protest Theater.' They both rise,
Make for the Coke dispenser. 'What's he like?
Christ, I just told you. Oh, you know the thing,
That crummy textbook stuff from Freshman Psych,
Not out of kicks or something happening--
One of those old-type natural fouled-up guys.' (CP 170)

대중적 소비 사회의 표상인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에 “코카콜라 자판기”를 이

용하는 제이크 발로코우스키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구어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미국인 학자로 비쳐진다.⁶⁾ 그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거나 이에 항거하는 저항 연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종신 교수직을 얻기 위해 원하지 않는 작가의 전기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가 정작 원하는 연구 분야를 미루고 종신 교수직에 필요한 실적을 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대상은, 어쩌면 라킨의 자조 섞인 “자기 정의”일지도 모를(Booth 43) “그저 구식의, 타고나길 엉망진창인” 작가이다. 이처럼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학문적 당위성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라킨은 대학 사회로까지 침투한 배금주의와 상업주의적 풍토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이 「후대」인 이유는 학문적 엄격성과 순수성을 미덕으로 지향해온 전통적인 대학의 후손인 현재 대학들의 달라진 모습, 복제된 마이크로 필름처럼 의미 없는 연구들을 양산하는 대학의 서글픈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III. 결론

라킨이 풍요로운 사회를 표방하는 1950-60년대 영국의 소비우선주의와 상업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풍자한 시인이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주로 세 번 째 시집 『성령강림절의 결혼식』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섯 편의 시들을 검토하면서 흔히 현실과 거리를 두고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취급한 시인이거나, 아니면 여성혐오적, 인종 차별적, 반동적 발언을 구사한 보수적 정치관의 시인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그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대의 사회 현실을 성찰한 비판적 사고의 시인이었음을 규명하였다.

6) 『높은 창문들』을 미국에서 출판하는 과정에서 라킨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출판인 로버트 지루(Robert Giroux)는 “Myra's folks,” “Tel Aviv” “money sign” 등의 표현이 반 유태적이라는 이유로 「후대」를 시집에서 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Motion 436).

「여기에」에서 내핍의 삶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소비 사회로 변모하는 영국의 모습과 물질적 욕구를 향한 대중의 값싼 욕망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라킨은 「크고 시원한 가게」에서도 현대인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상업주의 사회와, 그 속에서 변질되는 사랑의 의미를 점검한다. 「본질적인 아름다움」에서 자본주의 소비중심 사회의 표상인 거대한 광고판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누추한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성찰한데 이어, 라킨은 「햇빛 찬란한 프레스타틴」에서 해변휴양지를 홍보하는 광고 속 여성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상업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되는 현상을 비판한다. 30년 동안 헐 대학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의 규모적 팽창과 질적 하락을 목격했던 라킨은 「후대」에서 상업주의와 배금주의가 침투하면서 변질되는 대학 사회의 면모를 풍자한다.

비교적 많지 않은 작품들을 발표했지만 비평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시인이 라킨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라킨은 흑인에 대한 편견의 소유자였지만 흑인 재즈 음악에 심취하였고, 이민자들의 유입에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모순된 태도의 소유자였던 것이 사실이다(Booth 135). 한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개인에 대한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이나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견해에 기대어 한 시인의 작품 세계 전체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개별적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가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비록 다섯 편의 작품들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지만 상업주의와 소비중심주의에 지배받는 현대인들의 삶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라킨의 문제의식을 확인한 이상, 그의 시가 지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볼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Booth, James. "Philip Larkin: Lyricism, Englishness and Postcoloniality." *Philip Larkin*. Ed. Stephen Regan.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7. 187-210.
- Cooper, Stephen. *Philip Larkin: Subversive Writer*. Brighton: Sussex Academic P, 2004.
- Eagleton, Terry. "Only Pinter Remains." *The Guardian*, 7 July 2007.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jul/07/comment.politics>.
- Larkin, Philip. *Collected Poems*. Ed. Anthony Thwaite. London: The Marvel and Faber, 1988.
- _____. *Further Requirements: Interviews, Broadcasts, Statements and Book Review, 1952-85*.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4.
- _____. *Required Writing: Miscellaneous Pieces 1955-1982*.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9.
- _____. *Selected Letters of Philip Larkin: 1940-1985*. Ed. Anthony Thwaite. London: Faber, 1992.
- Marsh, Nicholas. *Philip Larkin: The Poem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Motion, Andrew. *Philip Larkin: A Writer's Life*. London: Faber, 1993.
- Paulin, Tom. "Into the Heart of Englishness." *Philip Larkin*. Ed. Stephen Regan.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7. 160-77.
- Regan, Stephen. *Philip Larkin*. London: Macmillan, 1992.
- Swarbrick, Andrew. *Out of Reach: The Poetry of Philip Larkin*. London: Macmillan, 1995.
- Thwaite, Anthony. "The Poetry of Philip Larkin." *The Survival of Poetry*. Ed. Martin Dodsworth. London: Faber, 1970. 37-55.
- Wain, John. "The Poetry of Philip Larkin." *Malahat Review* 39 (1976): 95-112.
- Whalen, Terry. "Conflicts with Capitalism: Philip Larkin's Politics." *The Antigonish Review* 111 (1997): 143-58.

Abstract

A Criticism of Commercialism in Philip Larkin's Poetry

Yoon, Heesoo (Pukyong National Univ.)

This study aims to examine Philip Larkin's critical attitude toward commercialism and consumerism which buttress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The study will reveal another significant aspect of his poetic world hidden beneath two contrasting critical views on Larkin that he is a poet pursuing universal themes of human life beyond time and history, or he is a poet with racial prejudices, misogyny, and right-wing political view.

In "Here," Larkin portrays a changing view of post-war Britain in which people crowd into shopping malls to gratify their desires for material affluence with cut-price goods. In "The Large Cool Store," he looks into the commercialized society which incites consumers to buy mass-produced cheap clothes and robs them of individuality. "Essential Beauty" contrasts the images of ideal life in huge advertising hoardings with sordid pictures of everyday life composed of "rained-on streets and squares." In "Sunny Prestatyn," Larkin describes a girl's seductive posture in a commercial poster and criticizes the objectification of female sexuality in consumer society. On the basis of his long-time experiences as a university librarian in which he witnesses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degradation of post-war universities, in "Posterity" Larkin satirizes the commercialized academic society in which research is determined b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scholastic curiosity and interest.

By analyzing his poems in detail, this study will illuminate another aspect of the poet who looks into the issues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dominated by commercialism and consumerism, and make a contribution to broaden critical perspectives on his poetry.

Key Words: Philip Larkin, advertisement, consumerism, commercialism, capitalism

필립 라킨, 광고, 소비중심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논문접수일: 2015.11.26

심사완료일: 2015.12.23

게재확정일: 2015.12.24

이름: 윤희수

소속: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이메일: yoonhs@pknu.ac.kr